

한-러관계사에 있어서 문화적요소의 영향

The Effects of Cultural Factors on the History of Korea-Russia Relations

이 민 (Min Lee)

러시아는 한국근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이다. 한-러관계사 속에는 양국의 사상전통, 외부 사상에 대한 수용과 변형, 상호적인 이미지 등 많은 문화, 관념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. 국제정치와 사상사, 문화사를 연결시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. 그들은 이익과 실력으로 좌우되는듯한 국제정치의 다른 한 얼굴을 보여준다. 한-러관계사를 관찰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얼굴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.

이민 (李旻) 은 1985 년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태어났으며, 2005-2009 년 북경대학에서 노어노문과를 전공하였고 제 2 전공으로 국제정치학 학사학위를 받았다. 2011 년 교환학생의 신분으로 모스크바국립대학(MГУ)에서 러시아문화, 민속학 등을 수학하였고, 2013 년에 북경대학 노어노문과에서 러시아 슬라브주의 관련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. 2015 년부터 중국사회과학원에 진학하여 동북아시아국제정치학 박사과정에 있으며, 현재 주요 관심분야는 한국대외관계사 및 그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등이다.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중국이민과 한인의 이주사를 주제로 중국 내 러시아 및 한반도 관련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였다.

Date & Time: May 25 (Thur.) 2017, 12:00-13:00

Place: SNUAC Rm #406